고규홍의 '나무생각'



나무는 장애물이 아니다

도시에서 나무는 '장애물'이기 십상이 다. 우선 시각 장애인에게 그렇다. 흰 지 팡이로 가늠하며 걷다보면 불쑥 나타나 는 나무에 부딪치기 일쑤다. 안내견을 동 반해도 마찬가지다. 안내견의 눈높이보 다 높은 곳에서 난데없이 다가오는 나뭇 가지가 부딪쳐 살갗이 긁히거나 옷가지 가 찢기곤 한다.

시력이 온전한 사람들에게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도시인들에게 특히 그 렇다. 울울창창 뻗어난 나뭇가지가 신호 등은 물론이고, 손님의 눈길을 끌어야 할 간판까지 가린다. 휴대전화를 들여다보 며 바삐 걸어야 하는 사람들에게도 도시 의 가로수는 장애물이 아닐 수 없다.

장애물이 된 나무는 잘려나갈 운명에 처한다. 둥글게 펼친 곡선의 나뭇가지를 사람의 취향에 맞춰 직선의 사각형으로 잘라내기도 하고, 끝 부분만 겨우 남긴 채 나뭇가지를 통째로 잘라낸다. 그나마 아 예 나무를 죽이거나 뿌리째 뽑아내지 않 은 것만도 다행이지 싶다. 참혹한 풍경이 라 해도 장애물인 이상, 도시의 나뭇가지 는 무참하게 잘리고 베어질 수밖에 없다. 인정사정없다.

도시는 처음에 나무가 살던 자리였다. 사람보다 먼저 자리 잡은 나무는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지어냈다. 그러자 사람 들은 나무를 베어내고 도시를 일으켜 세 웠다. 하지만 어떤 도시라 해도 나무 없이 살아가는 게 가능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나무를 다시 심었다. 대로에도, 고층 빌딩 곁에도, 아파트 단지 안에도.

도시에 살며 나무가 곁에 있다는 걸 체 감하는 건 쉽지 않다. 도시인의 삶이 그렇 다. 이른 아침에 잠이 덜 깬 채로 직장에 달려가며 나무를 헤아릴 겨를은 없다. 저 녁에도 마찬가지다. 피로에 지친 귀갓길 에 나무가 눈에 띄기를 기대하는 건 언감 생심이다. 결국 늘 걷는 길에 서 있는 나 무가 피운 꽃을 바라보며 생명의 이야기 에 눈맞춤하기는 애시당초 글러먹었다. 도시의 삶이 그렇다.

그러나 여유를 갖고 돌아보면 생각은 달라진다. 사람이 평안하게 숨 쉴 수 있도 록 하는 건 말 없이 서 있는 나무들이다. 나무 없이는 숨조차 쉬지 못한다. 뿐만 아 니라 대관절 나무가 없다면 집이나 가구 는 물론이고,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목재 기구들은 무엇으로 만든단 말인가.

내 삶이 나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귀로 나무줄기에서 물 흐르는 소리를 들 있다는 걸 느끼는 건 둘째 치고라도 바로 었다. 얼마 지나 그는 별다른 도움 없이 나무를 탐색했고 나무에 담긴 기운을 세 내 곁에 나무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는 잠 심히 느꼈다. 그이가 찾아낸 나무의 소리. 깐의 여유가 절실하다. 도시에서도 나무 와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걸 느끼 나무의 향기, 그건 생명의 기운이었다. 그 는 데에는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 즈음에 그가 말했다. 다. 단 1분, 아니, 30초 정도면 충분하다. 나무 그늘에 들어서서, 내가 내쉬는 날숨

"나무를 눈으로 보느냐, 다른 감각으로 느끼느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관심과 성의'라고 말했 다. 관심과 성의를 바탕으로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나무에 다가서느냐는 그냥 다 른 것일 뿐,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다. 도 시인들이 나무를 느끼기 위해 필요한 것 은 바로 그것, 관심과 성의다.

나무가 아름다운 곳에서는 사람도 평 화롭게 살 수 있다. 그러나 나무가 죽어가 는 곳에서는 사람도 살 수 없다. 나무는 장애물이 아니다. 말없이 삶의 바탕을 짓 고,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생명이다. 찬 란한 단풍 빛으로 물들었던 나뭇잎들을 내려놓은 나무 그늘에 들어서서 공생의 이치를 짚어보는 여유가 필요한 즈음이 다. 그것이 곧 이 땅에서 더 평안하게 살 아갈 지혜를 깨닫는 첫 걸음이지 싶다.

〈나무 칼럼니스트〉

의료칼럼

기침으로 알아보는 여러 질병



김동규 한국건강관리협회 원장

기침은 호흡기에서 발생하는 가장 흔 한 증상 중 하나로, 감기로 인한 기침인 경우 며칠 만에 특별한 치료 없이 좋아 지기도 한다. 그러나 폐결핵이나 폐암 같이 치료가 늦어지면 치명적일 수 있는 질환에 의한 것일 수도 있기에 기침이라 는 증상에 대해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급성 기침의 가장 흔한 원인은 감기다. 감기는 호흡기 바이러스에 의한 상기도 감염으로 콧물과 목통증, 열감 등의 증상 을 동반한다. 감기로 인해 발생하는 기침 은 저절로 좋아지나 약물을 사용해 조절 할 수 있다. 기침이 2주 이상 지속되는 경 우에는 단순한 감기가 아닐 수도 있어 다 른 원인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 감기는 매 우 다양한 바이러스에 의해 걸리기 때문 에 치료 백신이 현재까지는 없다.

반면 감기와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독 감은 일반적인 감기 바이러스가 아닌 독 감 바이러스에 의해 생긴다. 매년 가을, 겨울에 유행이 예상되는 바이러스에 대 한 백신은 공급되고 있어 나이가 많거나 호흡기 질환이 있는 경우 매년 독감 백신 을 접종하면 좋다.

폐렴도 급성 기침을 일으키는데 감기 에 비해 특징적으로 발열이 심하고 누런 가래를 동반한다. 그러나 사람에 따라 열 이 없거나 가래가 거의 없을 수도 있다. 폐렴이 의심될 경우에는 대개 흉부 방사 선 촬영으로 진단할 수 있다. 폐렴 구균 예방 접종을 했더라도 모든 폐렴에 대한 면역이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폐렴 에 걸릴 수 있어 안심할 수는 없다.

또한 진단 과정에서 흉부 방사선에서 는 나타나지 않아 흉부 CT를 찍어야만 확인되는 경우도 있다. 기침이 지속할 경 우 결핵을 의심할 수 있다. 결핵의 경우 만성적인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 아 2주 이상 기침이 있으면 흉부 방사선 촬영을 통해 결핵에 걸렸는지 여부를 확 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3주 이상 기침이 지속되는 경우를 아급성 기침이라고 한다. 아급성

기침은 보통 바이러스로 인한 상기도 감 염 후에 생기는 염증으로 인한 기침일 가능성이 있다. 보통 8주 이내에 증상이 사라지며 이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염증 에 대한 약물을 사용한다. 백일해 증상 이나 기존에 갖고 있던 폐질환이 악화돼 생기기도 한다. 3주 이상 지속되는 기침 이 만성 기침의 진행 양상일 수도 있기에 여러 원인을 고려해 검사하고 진단해 봐 야 한다.

은 나무에게 꼭 필요한 들숨이 되어 나무

의 몸을 한 바퀴 돌아 세상의 모든 생명

을 먹여 살릴 지상의 양식을 만들어낸 뒤

다시 사람에게 꼭 필요한 산소를 내뿜는

다는 사실을 돌아볼 수만 있으면 된다.

비로소 나무가 우리의 생명을 지탱해주

는 공생의 생명체임을 느끼는 순간이 다

가올 것이다. 나는 나무를 살게 하고, 나

무는 나를 살게 한다. 나무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는 순간은 곧 내가 살아있는 순간

나무를 장애물이라고 이야기했던 시각

장애인과 한 해 내내 나무를 찾아다니며

손으로 코로 귀로 나무를 감각하고 교감

하려 애썼던 적이 있다. 장애물이라고는

했지만, 그이는 성의 있게 손으로 나무줄

기를 만졌고, 코로 꽃향기를 탐색했으며,

또 기침 증상이 8주 이상 지속되면 만 성기침이라고 한다. 폐암・간질성폐질환・ 폐결핵 등 만성적인 기침을 일으키는 중 한 질환이 있는 경우 흉부 방사선 촬영으 로 어느 정도 알 수 있지만, 초기 단계에 서는 흉부 컴퓨터 단층 촬영이나 기관지 내시경을 해야만 확인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기침이 지속되는 경우 여러 가지 검 사를 고려해야 한다.

흉부 방사선 촬영이 정상인 경우에도 다양한 원인으로 만성 기침 증상이 나타 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천식과 만성 폐 쇄성 폐질환 같은 기도 질환이 있는지 확 인해야 한다.

천식은 기관지에 생기는 알레르기성 염증 때문에 생기며 '기관지 과민성'이라 는 특징을 보인다. 기침 증상만 있는 천식 도 있으나 호흡 곤란이나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동반되기도 하며 밤이나 새벽이 면 증상이 악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천식과 비슷하 게 호흡 곤란과 기침 증상을 나타내고 주 로 흡연을 하는 40대 이상에서 발생하나 흡연을 안 하더라도 직업적인 노출 등으 로생길 수 있다.

담배를 오래 피웠거나 기침 증상이 지 속되는 환자 가운데 흉부 방사선이 정상 일 때는 폐기능 검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 다. 폐기능 검사를 통해서 만성 폐쇄성 폐 질환을 진단을 할 수 있고 병이 얼마나 심 한지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기침은 급성에서 만성까지 기간에 따 라 나눌 수 있다. 매우 다양한 질환에 의 해 나타나는 증상이고 자연적으로 치료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건강이나 수명 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질환인 경우 도 있어 증상이 지속하거나 심한 증상이 동반되면 의사의 진료를 받고 흉부 방사 선 검사와 폐기능 검사 또는 흉부 CT 등 을 통해 원인을 세밀하게 찾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기침 자체로도 심한 경우 늑골 골절 등의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으며 중 한 질병이 있다는 몸의 신호일 수 있으므 로 주의해야 한다.

기 고

명랑 소녀 덕선 씨의 취업 성공기



김 철 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광주지사장

가정의 달인 5월, 제 나이의 또래들처 럼 밝게 웃고, 가족들에게 사랑받으며 학 교 생활을 하고 있어야 할 어린 여고생이 취업을 위해 두 장의 추천서를 들고 우리 공단의 문을 두드렸다.

작은 체격의 앳된 모습을 한 18살의 지적 장애인 덕선 씨(가명). 생후 16개월 만에 어 머니의 품을 떠난 아이였다. 양육 시설에서 여러 사람의 따스한 사랑을 받고 자란 그녀 는 결코 삐뚤어지거나 하지 않았다.

그러나 예고 없이 찾아온 낙마 사고는 말(馬)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어했던 그 녀의 꿈을 빼앗아버렸다. 편의점 아르바 이트까지 하며 말(馬) 관련 장비를 구입 하기도 했지만, 한순간의 사고로 간절하

게 지켜온 자신의 목표가 허무하게 사라 져 버린 것이다.

그렇게 꿈을 잃고 시작하게 된 취업 성 공 패키지는 그녀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듯 보였다. 매번 상담에 20분씩 늦는 등 취업에 대한 의욕조차 보이지 않았다. 목 표를 잃은 덕선 씨는 마음의 문을 굳게 잠 그고 어느 누구에게도 곁을 주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 직원은 포기하지 않았다. 함께 밥을 먹고 차를 마시면서 시간을 보 내고, 화장법이나 패션 등 그녀가 좋아할 만한 관심사를 찾아 함께 공유하고자 노 력했다. 조금씩 마음을 열어갈 때쯤 결정 적인 계기가 생겼다. 이틀에 걸쳐 진행된 '단기 집단 상담 프로그램'에 참가한 그녀 가 진심으로 취업 성공 패키지를 받아들 이게 된 것이다.

처음 만나는 또래 친구들, 아버지 • 어머 니뻘 참여자들. 사람도 낯설고 상담 프로 그램도 새로웠지만 덕선 씨는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과 거리를 두지 않았다. 장애 로 꿈은 잃었지만 새로운 꿈을 위해 도전 하는 그들 사이에서 희망을 얻고, 그동안 받아보지 못했던 가족의 사랑을 느낀 것 은 아니었을까?

프로그램을 진행한 강사 또한 그녀에 대해 '감성이 풍부하고 새로운 일에 대한 희망과 두려움을 같이 가지고 있는 상태 이며, 낯가림이 심해서 사람들하고 쉽게 친해지지 못하지만 한번 친해지면 먼저 말을 걸 만큼 사람들을 좋아한다'고 진단 했다.

덕선 씨는 지금 광주에 있는 유명 대학 병원에서 근무 중이다. 그녀가 주로 하는 업무는 '환자 안내'다. 매일 모르는 사람들 을 웃으면 도와야 하는 일이지만 두려움을 털어낸 그녀는 즐겁고 자신 있게 자신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물론 이곳에 취업 하기까지의 과정도 순탄치만은 않았다.

3주간의 실습 훈련이 진행됐지만 직무 에 적응하지 못한 그녀는 무단 결근을 하 면서 사람들의 애를 태우기도 했다. 낮을 많이 가리는 성격 탓에 주위 사람들에게 소극적이라는 오해를 사기도 했다.

하지만 그녀의 꿈을 응원했던 우리 직 원과 직무 지도원의 지속적인 도움을 받 으면서 결국 '최초의 고등학교 재학생 채 용'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게 되었다.

돈을 벌면 무엇을 가장 하고 싶으냐는 질문에 천진난만한 얼굴로 "타지에 있는

고등학교 친구들과 함께 놀러 가고 싶다" 고 대답을 하며 웃는 덕선씨.

그런 그녀는 요즘 새로운 도전에 나섰 다. 자신의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 '간호 조무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노력하고 있 다. 물론 친언니 같은 우리 직원과 함께 말이다. 명랑 소녀 덕선 씨의 성공기는 여 전히 진행 중이다.

장애인 취업 성공 패키지는 장애인의 성공적인 취업과 직업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단계별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 하는 전문적인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다. 올해부터 장애인 고용 전문기관인 우리 공단이 장애인을 전담하여 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으며, 연간 서비스 인원이 8000 여 명에 달하고 있다.

3단계로 구성된 취업 성공 패키지는 장 애인들의 잠재된 능력을 향상시킬 뿐 아 니라 그들을 다양한 일자리로 안내하고

살을 에는 듯한 실패와 좌절이라는 계 절을 지나 따뜻한 희망의 계절을 맞이하 고 있는 우리 장애인 이웃들에게 더욱 많 은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 또 다른 덕선 씨가 꿈을 펼 수 있도록.

社 說

호남고속철 무안공항 경유 조기 확정을

10년 이상 표류해 온 광주 송정~목 포 간 호남고속철도 2단계 노선이 이달 중 확정 발표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고 조되고 있다. 정부·여당의 핵심 관계자 들이 잇따라 무안국제공항을 경유하 는 노선이 유력하다고 밝히면서 침체 에 빠진 공항의 활성화에 새 전기를 마 련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도 부풀고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최근 광주·전남 지역 기자간담회에서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은 무안공항 을 경유하는 노선으로 결정됐다고 생 각해도 된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는 "노선이 확정되지 않아 154억 원만 편성된 상태지만 전년도 이 월액 554억 원에 철도시설공단 예산을 더하면 1100억 원 정도는 반영할 수 있 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도 지난 3일 국회 예산안 회의에서 호 남고속철 2단계 노선 결정 시기에 대해 "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정부가 입장 을 발표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따라 지역 정치권과 지자체는 무안공항 경유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 는 분위기다. 전남도는 연내 노선이 결 정될 경우 내년부터 공항 활성화 사업 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후속 대책 마련 에 착수했다. 대형 항공기 취항을 위한 활주로 연장과 수화물 처리 시설 확대, 새로운 항공 수요 창출, 광주공항과 무 안공항 통합 논의, 항공 정비 산업 활성 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개항 10년을 맞은 무안국제공항은 당초 국토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계획 됐지만 접근성이 떨어지고 인프라조차 빈약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정부 부 처 간 이견과 경제성 논리에 밀려 시설 개선은 매번 퇴짜를 맞았다. 올 들어서 는 사드 갈등 여파로 이용객이 대폭 줄 어든 데다 정기 국제선마저 끊겨 위기 를 맞고 있다. 호남고속철 무안공항 경 유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 과제다. 정부는 노선을 조기에 확정해 국제공항으로서 면모를 갖출 수 있도 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한미FTA 개정 협상 농업 분야 제외시켜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농업 분야가 개정 협상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 가 커지고 있다. 지난 2012년 발효된 한 미 FTA는 농축산물 대부분의 관세를 철폐한 무역자유화 수준이 가장 높은 협정이었다. 그로 인해 5년이 경과한 현재는 농축산물 무역수지 적자가 65 억 달러(약 7조 원)에 달하는 등 농업・ 농촌 분야의 피해는 막대하다.

농민들은 FTA 재협상으로 농축산 물 추가 개방이 이뤄진다면 농업ㆍ농촌 관련 분야는 고사할 수밖에 없다며 강 력히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전남도가 최 근 개최한 '한미 FTA 대응 간담회'에 서 농민과 농업인 단체 회원들은 "자칫 국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이익을 지키 기 위해 5년 전 협상처럼 농업·농촌 분 야의 희생을 강요하는 일이 되풀이돼서 는 안 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한미 FTA 이후 농축산물 대미 수입 은 크게 증가해 지난해 71억 달러를 기

록, 수출액 7억 달러보다 10배 이상 많 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는 농업인 들의 의견을 수렴해 "한미 FTA 개정 협상 대상에서 쌀을 포함한 농업 · 농촌 분야를 제외시켜 줄 것"을 정부에 건의

전남도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공 동으로 올 상반기 수입 농축산물 가운 데 미국산이 물량·금액 면에서 모두 1 위를 차지한 데다 미국이 연간 65억 달 러의 무역 흑자를 보고 있다는 점을 정 부에 각인시켜, FTA 개정 협상에서 농 업 부문을 제외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당연한 얘기다.

하지만 농업 분야가 개정 협상에 포 함될 경우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그럴 경우 그동안 우리에게 불리했던 '낙농품 무관세 쿼터제'의 폐지, 쇠고 기·돼지고기·낙농품 등에 적용되는 농산물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 완화, 농 산물 관세 철폐 반대 등을 관철시켜야

無等鼓 🕠

보이콧

집 인근에 비슷한 스타일의 생활 가 구를 파는 업체가 세 군데나 있다. 전 국에 체인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다. 딱 히 단골은 없고 필요한 물품이 있을 때 면 세일 기간, 할인율 등을 살펴가며 적 합한 곳에서 구입을 하는 편이다.

한데, 최근 들어서 어느 한 곳에는 발 길이 닿질 않을 뿐만 아니라 간판을 볼 때마다 기분이 언짢아지기도 한다. 여직 원에 대한 연속적인 성추행 사건으로 문 제가 된 업체다. 아직 정확한 진실이 밝 혀지지는 않았지만 소

비자들 사이에서 회사 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높고 제품을 보이콧해

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지난 1996년 미국 '라이프지'에 실린 한 '어린아이'의 사진은 나이키에 치명 적인 상처를 안겼다. 파키스탄 시알코 트 지역의 어느 어린아이가 나이키 축 구공을 바느질하고 있는 모습을 담은 사진이었다. 전 세계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어야 할 축구공이 실제 론 제3 세계 가난한 아이들의 노동 착 취를 통해 만들어졌다는 사실은 전 세 계인들을 분노케 했다. 미국 소비자 단 체를 중심으로 보이콧 운동이 벌어졌 고 나이키 주가도 떨어졌다. 나이키는

본사와는 관계없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사과를 할 수밖에 없었다.

'거부·배척·불매 운동'을 뜻하는 '보 이콧'은 한 남자의 이름에서 유래된 말 이다. 찰스 보이콧(Charles Boycott 1832~1897)이란 사람은 아일랜드 부재 지주의 경작 관리인이었다. 1879년 아일 랜드에 흉년이 들자 소작농들은 토지 동 맹을 결성, 소작료 인상을 내걸고 투쟁을 전개했다. 하지만 보이콧은 농민들을 내 쫒으며 탄압을 했고 이에 마을 상점은 물

> 론 교회까지도 보이콧 을 배척하며 사람 취 급을 하지 않았다.

보이콧은 소비 사

회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트럼 프 대통령의 '반 이민 행정 명령'에 반 대해 난민들을 대거 고용하겠다고 선언 한 스타벅스에 트럼프 지지자들이 보이 콧을 선언했지만 트럼프 반대자들은 스 타벅스를 더 열심히 이용하기도 했다.

국내에서도 치킨 업체, 카드 업체 등 업종을 불문하고 '갑질' 등을 일삼는 기 업에 대한 보이콧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무분별한 보이콧은 지양해야겠지 만, 소비자의 '날카로운 눈과 행동'은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을 일깨우기 위해 꼭 필요하다. /김미은 문화부장 mekim@

光则日朝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편집국안나 제 부 220-0663 〈대표 FAX 222-4918〉 (FAX 222-4938)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정 치 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220-0664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기획관리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FAX 227-9500⟩ 디 자 인 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 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